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가톨릭의료 봉사

한국 가톨릭의료협회는 지난해 출범을 계기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비전을 보이며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분야의 하나가 해외의료지원사업입니다. 협회 회원병원의 성금을 주 자원으로, 공모된 단원을 주축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몽골의 오지 자갈란트(울란바토르로부터 140km 떨어진 곳)에서 약 1년여 간 준비한 문화행사를 포함하는 의료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지인은 물론이고 몽골 정부요인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전해 들었고 공식 평가회 석상에서 참가 단원 모두에게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해외의료지원사업은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표본적인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국전쟁 이후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극도의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혜택은 지금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더라도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지원이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행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주목할 점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들도 더더욱 발전하여 세계 최강국으로 변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눔으로써 더 커진다’는 성경구절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경험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의 참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봉사를 통해 참가자가 얻게 되는 신앙적 지혜와 체험적 산교육은 계량화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이번 참가자들의 증언을 통해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세계 12위를 자랑하며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협회 및 회원병원 대다수는 아직 자립경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

만, 제3세계 국가의 생활상은 30~40년 전에 우리가 겪던 극도의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사랑을 좀 더 체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공헌이 기업의 주요 덕목이 되고 기업전망의 평가에 주요 항목이 되어 ‘제3의 경영’이라고 칭할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전시행정을 위해 일과성 위주로 의료봉사를 추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병원의 의료진이 십수 년 동안 매년 세계 오지를 방문하여 알찬 의료봉사를 추진해 왔던 바 이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가 밑거름이 되어 이번 사업과 같이 성숙된 모습으로 큰 성과를 거두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CMC를 포함한 회원병원에서도 몽골 지역 해외의료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의미를 잘 살려 기획하고 협회와 회원기관이 개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외부에 비춰지는 것보다는 ‘한국의 가톨릭의료’라는 큰 명분으로 시너지를 만드는 연계방안과 수혜자 위주의 맞춤형 의료지원 실천으로 한국 가톨릭의료기관의 큰 모습을 보여주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2007년에도 사업의 성공을 이어가고자 뜻있는 많은 분의 성금, 구제품, 의료기기 및 소모품 등의 기부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뜻있는 많은 분이 직접 참여하여 결집된 우리의 사랑과 능력이 세계를 향해 전파되어 꽃을 피우는 날을 그려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회원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